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장석주  
시인

벌써 도타워진 햇볕과 청명한 날은 추위로 웅크렸던 날에 대한 보상이다. 그래서 봄이 온다는 소식은 기쁘다. 곧 한파를 견딘 산수유와 생강나무에 노란 꽃이 피고, 느릅나무와 버드나무 가지에는 연초록 새순이 돋을 게다. 아침에는 짙집째 사들분으로 쪄간 사과에 곁들여 호밀빵과 견과류를 쟁겨 먹었다. 포만의 행복은 없지만 한 끼로 부족하지 않다. 봄기운을 더 느끼려면 둔덕이나 빈 밭에서 나온 냉이나 달래를 넣은 된장찌개와 머위나 두릅 같은 나물을 된장이나 액젓과 버무려 뜬깨가 우루를 넣어 곁들여 먹어야 한다. 입안에 퍼지는 흙냄새는 기력이 쇠해진 사람이 묵은 병마저 떨치고 일으켜 세울 만한 봄의 보약이다.

아직 조춘(早春)의 바람 끝은 차다. 이따때 유독 알레르기가 심해진다. 연신 재채기를 하고 콧물이 흐른다. 항히스타민류의 약을 한두 알 먹지만 효과는 일시적이다. 약의 내성을 피하려면 몸의 면역력을 높일 수밖에 없다. 우리보다 한 세기를 먼저 살다 간 젊은 시인은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웁엔 이유가 없다’ (운동주, ‘바람이 불어’)라고 노래한다. 바람이 일개운 괴로웁엔

봄날엔 그 노래를 듣는다

이유가 없다고 했다. 눈 녹은 물이 종일 흐르는 하천에는 일찍 겨울잠에서 깬 산개구리들이 모여 우는데, 어찌자고 어찌자고 바람은 우리 안의 괴로움을 일깨우는 것일까.

낮엔 겨우내 덜결이던 낡은 부엌문 문쪽의 헐거워진 경첩의 나사못을 죄고 못이 빠진 판자에는 새로 못을 박는다. 봄벌 아래 낮잠을 자던 고양이들이 기지개를 켜고 하품을 한다. 허기로 출출해져 서둘러 잔치국수를 끓여 한 그릇을 비우고 약수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양지에 의자를 내놓고 무릎에 담요를 덮은 채 책을 읽었다. 책을 얼마나 읽었을까. 봄날의 낮은 까지 쫓지만큼이나 짧다. 누가 서면 하늘에 낡은 피를 한 양동이나 쏟았나? 어느새 뉘엿뉘엿 지는 해는 핏물인 듯 붉은 석양에 잠겨 있지만 그건 아주 잠깐이다. 출다가 실내에 웅크려 있던 아이들이 운동장에 나와 소리를 지르며 개치불을 하다가 돌아간 뒤 저녁녘의 땅거미가 내려온다.

살아 있다는 것은 망각과 상실의 세월을 산다는 뜻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십여 년이 지났다. 어머니 애창곡은 옛노래 ‘봄날은 간다’였다.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 그 노래 말고는 들어본 적이 없다. 어머니의 노래에 울컥했는데, 노래에 어머니의 온갖 슬픔과 시름이 다 녹아 있었던 탓이다. 양기슭에 쌓인 회한의 내역도 아득해져 이젠 짐작조차 할 수가 없다. 그 아득함에 맞물려 홍콩 영화 전성시대의 배우 장국영이 출연한 영화의 한 대사가 떠오른다. “세상에 발 없는 새가 있다더군. 날아다니다 지치면 바람 속에서 쉬네. 딱 한 번 땅에 내려앉는다는데

그건 바로 죽을 때지.” 어머니의 봄날은 짧았다. 발 없는 새 같이 산 어머니가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신 것은 이른 봄이다. 침상에 누운 어머니의 핏기 없이 하얀 발이 이불 밖으로 비어져 나왔다. 그 발을 무심코 쓰다듬었는데 얼음처럼 차가워서 섬뜩했다. 어머니가 임종을 맞는 순간 여동생 셋이 일제히 무너지듯 주저앉으며 오열했다. 2월 하순께 장례를 치르고 납골당에 모신 뒤 돌아왔다. 며칠 동안 어머니의 빈자리는 텅 빈 채로 허전했다.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고 혼자 있는데, 새벽마다 부엌에서 성경을 읽던 모습이 떠올랐다. 어머니는 시름없는 천국을 꿈꾸며 고된 생의 날들을 견디셨던 것일까.

아버지지는 거듭된 사업 실패로 노동의 의욕을 잃은 채 오랜 세월 바깥 활동을 접고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어머니가 무기력한 아버지를 대신해 식솔을 챙기셨다. 초등학교 졸업 학벌에 기술도 익힌 게 없으니, 어머니가 감당할 노동은 남들이 다 기피하는 하찮고 굶은일뿐이었다. 이제는 어머니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빈다. 젊은 날엔 봄도, 봄꽃에도 태무심하다가 나이 들어 봄꽃의 화사함을 알아보고 감탄하게 되었다. 부쩍 부고 소식이 잦은 봄날, 병과 죽음은 이렇듯 흔한데, 어찌자고 어찌자고 봄꽃은 마구 피어나는가? 답 주연 열일 제쳐놓고 봄 바다를 보러 떠나자. 눈이 시리고 가슴 탁 트일 때까지 통영의 쪽빛 바다를 보자. 중앙시장통 허름한 식당에서 도다리숙국을 사먹고, 박경리 문학관도 둘러보자. 아튬날을 쌍게사로 건너가 대웅전 부처님도 만나고 뒤뜰을 살뜰하게 돌아본 뒤 하동에서 재첩국수 한 그릇을 먹은 뒤 상행 열차로 돌아오자.

종교칼럼



최현열  
광주 은교회 담임목사

2023년 2월 6일 새벽 4시께 남서쪽 시리아와 맞닿은 튀르키예 지역에서는 최근 100년간 가장 강력한 대지진이 발생하여 큰 재앙이 엄습했다. 지진 강도가 규모 7.8로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32기를 동시에 터뜨리는 강도에 해당한다니, 기가 막히기도 하지만 상상도 잘 안 되는 파괴력이다. 예전 데 덮친 격으로 아홉 시간 뒤에 또 다른 규모 7.5의 강진이 휘몰아쳐서 인구 200만 명인 가지안테프와 북쪽의 인구 40만 명인 카라만마리수 도심을 덮쳤다. 피해 규모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서 수만 명의 희생자와 10만 명 가까운 부상자, 100만 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마치 성경에서 경고하는 마지막 환난이 임한 것처럼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이었음을 전하는 현지인들도 있었다.

1999년 8월 17일 튀르키예 이즈미트 지역 대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그때 기사를 찾아보니 사망자가 공식 집계보다 많은 4만 5000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때 튀르키예가 막대한 피해를 입자 각국에서 구조대를 파견하고 지원금을 주었는데 특히 앙숙인 아르메니아가 그리스도 구조대를 파견했다. 튀르키예의

어느 튀르키예 군인의 흑백 사진

형제국인 아제르바이잔은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 독일, 러시아, 이스라엘, 영국, 스페인, 폴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헝가리, 프랑스, 일본,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집트, 스위스, 아이슬란드도 구조대를 파견해 한 마음으로 잔해 속에 고립된 튀르키예인들을 구조했고 튀르키예인들은 이들 국가들의 노고에 감동을 느꼈다. 이외에도 인도도 튀르키예에 막대한 지원금을 제공했다.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은 직접 지진 피해 지역을 방문해 애도를 표했다.

당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웠는데 튀르키예 내에서 부실공사 문제가 대두되었고 튀르키예 정부는 내진 설계를 의무화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거주 공간들이 불법 건축, 기준 미달 건축, 부적합한 지반 위 건축, 건축 비용 절감을 위한 자재 횡령 등 부실공사 종합 세트로 지어진 덕에 사상자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때문에 건설사에 집단 소송이 제기되었고 일부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지만 상당수가 법 집행이 연기된 데다 2007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덕에 대부분의 책임자들은 책임도 지지 않은 채로 계속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지 23년 만에 또 다시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었다. 이번 지진에 피해가 컸던 이유로 결국 마찬가지였다.

지진이 튀르키예 현지인 천구와의 영상 통화를 한 내용을 알려 주었다. 구호 물품이나 성금을 보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유는 대부분 성금이 이재민에게 가지 않고 권력층의 주머니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라

고 했다. 개인의 의견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힘과 마음을 동원하여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도와 주어야 한다. 북마른 이에게 물 한 모금 달을 수 있다면, 추위에 떨고 있을 사람들에게 작은 아발 한 조각을 덮게 할 수 있다면 구호품을 보내고 성금을 보내야 한다. 더군다나 형제 국가라 불릴 정도로 각별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은가. 망연자실한 그들의 모습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

전도서 11장에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라는 구절이 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 내가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베풀라는 것이다. 멸망의 때, 난리와 재난의 소식이 있겠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고 복음서에 말씀하고 있다. 진정한 끝은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기독교인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해야 할 것은 온정을 베푸는 것이다. 울더라도 씨를 뿌리듯, 오늘도 기어코 사랑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베푸는 것이 곧 예수께 한 것이라 말씀 하셨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튀르키예 군인이 한국 아이를 안고 있는 흑백 사진이 있다. 그리고 2023년 대한민국의 구조대원의 그 나라의 아이를 안고 있는 컬러 사진을 보았다. 70여 년 전 흑백사진을 컬러로 복원한 것 같은 느낌은 나만의 착각인 것일까. 튀르키예 국민들이 새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연극, 그 두 시간의 집중을 권하며

내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지난 세기의 70년대 말에, 나는 서울에서 광주로 돌아오려고 야간열차를 탔다. 서울 용산역에서 광주역까지 완행표는 천이백 원이었는데 나는 돈이 부족해서 천안까지만 표를 끊었다. 천안에서 광주까지는 ‘독목 열차’를 타기로 했다.

나는 어떻게든 광주까지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짰다. ‘열차가 천안을 지난 후에 검표원이 다가오면 자는 척하자. 그렇게 표 검사를 넘기자.’

그런 계획을 짜놓고 나자 약간 느긋해졌다. 졸음이 오자 잠을 잤다.

누군가 흔들었다. 검표원이 와서 표를 보자고 했다. 나는 잠든 척하고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다. ‘잠든 자는 깨울 수 있다. 그러나 잠든 척하고 있는 자는 깨울 수 없다.’ 이 말은, 무식한 자는 일 깨울 수 있으나 거짓에 몰든 자는 일깨우기 어렵다는 뜻이라고 알고 있다. 아무튼 나는 잠든 척하고 있는 자였다.

검표원은 나를 떠났다. 나는 계속 잠든 척하고 있으면서 생각했다. ‘이제 광주역까지는 별일 없이 가게 됐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지? 광주역 주위는 담이 높아서 그걸 넘어 도망칠 수 없어. 거기에서 내리면 안 돼. 송정리역에서 내리자. 거기는 여가저기가 엉성하니까 빠져나가기 쉬워.’ (지금은 광주 송정역이지만 예전에는 송정리역이었다.)

나는 내 계획에 만족했고 다시 잠이 들었다. 실컷 자고 났더니 새벽이었다.

야간열차는 송정리역에 정차했고 나는 거기서 내렸다. 개찰구를 보니까 역무원이 하품하면서 표를 받고 있었다. 나는 개찰구의 반대쪽으로 가서 도망치기로 한 계획을 바꾸었다. 건성으로 일하는 역무원에게 표

를 주고 개찰구를 통과하기로 했다. 나는 개찰구로 가면서 약간 초조했으나 그걸 숨기려고 주위를 둘러보며 느긋한 척했다. 나름대로 연기를 한 거였다.

개찰구에 이르러 천안역이라고 쓰인 데가 보이지 않도록 표를 뒤집어서 내밀었다. 표정은 느긋함을 연기했다. 역무원이 표를 받아서 그대로 표 무더기데다 올려놓았다. 나는 개찰구를 지나갔다.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된 게 만족스러웠다. 그 만족스러움을 즐기면서 역무원을 돌아보았다. 역무원과 눈이 마주쳤다.

역무원이 표 받는 일을 하면서 내게 말했다. “다음에는 제대로 표 끊어.”

나는 역무원에게 물었다. “어떻게 내 표가 거짓이란 걸 알았어요? 그 표를 보지도 않았잖아요?”

“표 아닌 자네를 봤어. 자네는 개찰구로 다가오면서 여가저기를 보았지. 볼 만한 게 없는데도 그랬어. 자신을 위장하려고 그런 거지.”

역무원이 씩 웃으며 덧붙였다.

“쓸데없이 눈길을 여가저기로 주면서 자신을 위장하지 마. 봐야 할 것을 보면서 살아.”

그 후로, 나는 역무원의 충고에 따라 봐야 할 것을 보면서 살려고 노력해 왔다. 봐야 할 것들 가운데 연극이 있었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연극을 보라고 권하면서 이렇게 덧붙인다.

“연극은 두 시간가량의 집중이야. 아는 척하려고 여가저기로 눈길 주지 않고, 연극을 집중해서 보면 만나게 돼. 여러 사람이 만든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때로는 평생 마음에 남는 이야기들.”

社 說

난항 겪는 해상풍력발전, 특별법으로 돌파구를

전남의 핵심 현안인 8.2GW의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자연자원 훼손 등을 이유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데다 지자체와 정부 부처마저 엇박자를 내고 있는 탓이다.

영광군은 최근 전남도에 ‘해상풍력 공동 접속설비 건설사업’ 관련 공문을 보내 건설 예정지 변경을 요구했다.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신안 자은-임자도 일대에 들어서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외부로 송전하기 위해 구축할 고압(345kV) 송전선과 첩탑 66개가 영광군내 염산·군남·불갑·묘량·대마 등 다섯 개 면을 통과한다는 게 그 이유다. 이들 지역에는 태청산과 불갑저수지 등 영광의 핵심 관광사업 대상지들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건설 예정지를 무안~함평 방향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선 데 달친 적으로 국방부도 군사 작전에 장애가 된다며 풍력 발전기 높이를 전남도 요구의 절반 수준인 500피트

(152m) 이내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업 착공 시기가 예정보다 1년 이상 지연되는가 하면 올 상반기 착공 예정이었던 99MW 규모의 발전사업 두 건도 내년 하반기로 늦춰졌다.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은 전남의 풍부한 해상풍력 자원과 조선 및 발전 기술 등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수준의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10년간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400개 이상 관련 기업 유치와 12만 명의 고용 효과가 예상되는 한국판 그린 뉴딜 사업이다.

하지만 해상풍력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선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정치권은 이익 공유 등을 통한 주민 수용성 확보와 인허가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풍력 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전남도 역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효과 ‘AI 케어’ 확대해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독거노인들을 보살피는데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말벗이 되어 우울감을 줄여 주고 건강 개선은 물론 홀로 생활하다 사망 이후에야 발견되는 고독사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정화 전남대 생활복지학과 교수 연구팀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실시된 ‘AI 스피커를 이용한 노인 케어 서비스’ 연구 결과를 그제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광주시 서구와 KT가 농성 1동 독거노인 212명에게 ‘AI 케어’가 가능한 스피커를 무료로 지원해 진행했다. 농성동은 노인 인구 비율이 23%, 독거노인 비율은 34.1%로 전국 평균보다 매우 높은 지역이다.

조사 결과 서비스를 이용한 독거노인 중 80.0%가 건강 수준 개선·유지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우울감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응답자는 63.5%였고, 고독감과 상태 불안감을 덜어 준다는 응답도 각각 65.9%, 72.6%에 달했다. 특히 AI 스피커

가 특정 단어를 인식해 KT텔레캅으로 자동 연결, 119에 출동을 요청하는 응급 알람 서비스가 고독사 예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월평균 1.9건의 응급 알람이 접수됐고, 고령의 독거노인 여덟 명이 호흡 곤란·가슴 통증 등 응급상황에서 구조됐다. 이외에도 복약 시간 알림, 교통·날씨 정보 안내, 음악 추천, 말벗과 대화 등의 서비스는 외롭게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활동무가 되어 줘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지역에서 홀로 살다 숨진 독거노인은 지난 5년간 551명으로 매년 110명에 이른다. 2년 전 고독사 예방법이 시행됐음에도 체계적 대응은 미흡하지만 하다. ‘AI 케어’의 효과가 확인된 만큼 이를 고령층 돌봄과 고독사 예방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대상도 독거노인은 물론 장애인과 치매 취약 계층, 나이가 가족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대화형 초거대 인공지능(AI)인 ‘챗GPT’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로봇, 인터넷, AI 등의 초고속 발전을 목도한 현대인들로서는 웬만한 혁신에는 눈썹도 깜빡하지 않지만 이번 ‘챗GPT’에 대한 반응은 뜨겁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로봇이나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는 물론 과학적 개념이 없었던 고대 시대에도 신화나 전설 등을 보면 현대의 로봇이나 인공지능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창조물이 등장한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인 ‘탈로스’이다. 탈로스는 크레타섬을 지키는 파수병 거인 로봇이다. 그는 침략자로부터 크레타섬을 지키기 위해 크레타 해안을 하루 세 차례 순찰한다. 오몸이 청동으로 되어 있는 탈로스는 적들을 물리칠 때 뜨겁게 달아오른 몸통으로 담석 깨안아서 죽였다고 한다. 탈로스는 천하무적이었지만 발목의 빗장(나사)이 빠지면서 죽은 것으로 나온다. 즉 탈로스는 현대 개념으로는 부속품 고장으로 인해 망가진 로봇인 셈이다.

인조인간의 개념이 담긴 신화도 여럿 있다.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는 상아로 여자 조각상을

만들어 ‘갈라테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사랑에 빠져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에게 사랑으로 만들어 달라는 기도를 올려 소원을 이룬다.

유대의 전설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 탈무드에도 등장하는 ‘골렘’은 지구 모든 지역에서 굶어모은 흙먼지로 만든 인형에 생명을 불어넣은 거인이다. 중국의 전설에도 인조인간으로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온다. 주나라의 ‘목왕’이 어느 날 손재주가 뛰어난 언사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언사가 그에게 사람과 똑같은 인형하나를 데려왔다고 한다. 이 인형은 사람처럼 노래를

르고 춤을 추기도 해, 궁정꾼들은 그 인형을 ‘가짜 인간’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AI와 로봇은 읽고, 쓸 수는 있었지만 내용을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챗GPT는 판결문을 쓰고, 연애 상담이 가능한 인간의 정신노동까지 감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챗GPT 상용화는 편리라는 이익을 얻는 대신 인간의 교육 및 사고 능력의 저하라는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또다시 문제는 인간이다.

/채희중 정치담당 편집국장 chae@

기 고



정범중  
작가

나는 작가입니다, 하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러나 보다 하고 넘어간다. 회콧도 씁니다, 하고 말하면 사람들이 서로 마주 본다. 그런 걸 쓰는 사람이 아직도 광주에 있나? 하고 서로 묻는 투로.

나는 작가여서, 그리고 작가답게 소설과 동화와 희곡을 쓴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런 질문을 받았다. ‘셋의 매력은 뭔가요?’ 나는 셋 모두 쓰기 어려운데 이게 바로 매력이라고 했다.

희곡은 쓰기도 어렵지만 공연하기는 더 어렵다. 여기에는 배우, 연출가, 무대, 관객 등이 함께해야 하니까. 말하자면 대형 프로젝트이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가 광주에서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 이들이 많다. 물론 그런 점도 있다. 하지만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연극 무대를 외면하고 유튜브나 OTT에 관심을 둔다. 거기에서 얻은 잡다한 지식으로 세상을 다 안다고 떠든다.

나는 젊은이들을 만나서 연극에도 관심을 가지라고 한다. 그러면서 여가저기에 눈길을 돌리는 대신, 가끔 두 시간 정도는 봐야 할 것을 보는 게 필요하다고 충고한다.

충고만 하면 젊은이들은 웬 큰대 짓, 하고 외면한다. 그래서 나는 젊어서 겪었던 일을 얘기해 준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함))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21 전 남 본 부 220-0680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무 구 220-0551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